



# 대한의사협회지 새 웹사이트 소개

## An Introduction to the New Web Site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최 인 홍 |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 In Hong Choi, MD

Department of Microb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허 선 |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 Sun Huh, MD

Department of Parasitolog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안 덕 선\* | 연세의대 생리학교실 | Duck Sun Ahn, MD

Department of Phys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Duck Sun Ahn

E-mail: dsahn@yuhs.ac

Received July 6, 2010 Accepted July 20, 2010

### Abstract

Th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JKMA) established a new web site in July, 2010 available at <http://jkma.org/>. Here, we introduce the basic structure and concept of the new web site. The new web site provides current medical information from Korea to KMA members as well as global readers.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will also be organized in an easily accessible. Starting from this basic platform, JKMA will improve and expand other online functions in the near future. We hope every member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enjoys browsing the content of JKMA through the new site and using the information they find in their clinical practice.

**Keyword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eb site; e-journal

**핵심용어:** 대한의사협회지; 웹사이트; 전자학술지

### 서론

2010년 7월 대한의사협회지는 새 웹사이트(<http://jkma.org/>)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새 웹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즉 한국의 최신 의료 정보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할과 한국 의료계의 지나온 발자취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역할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과거

대한의사협회지는 1948년 5월 10일 창간호를 선보인 “朝鮮醫學協會會報”에서 시작하였다. 제1호의 권두언은 서재필 박사가 작성하였고(Figure 1)[1], “조선의학협회회보발간에 제하여”, “우리의사회의 연혁” 및 “제1회 학술대회 연설 초록”이 게재되었다. 제2호는 1년 후인 1949년 발행되었으며, 이때 대한의사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제호가

# 卷頭辭

徐載弼

約十個月前에 나는 五十餘年前住居한 美國에 떠나 朝鮮에 돌아왔습니다. 歸國한나 의 所感은 一喜一悲이였었습니다. 내가 出生하였고 나의少時에 政治의改革運動에 努力 하든 그말을 나서 歸國때에 나는 歸國했습니다, 이五十年於間 朝鮮民族은 露西帝國勢力 下의 韓國最後王政下에있었고 十二年이었고 日帝壓制下에 呻吟한지 三十八星雷이였습 니다. 그 於間 朝鮮에는 큰 變遷이있었으리라는것이 나의 希望이였었는데 우리民族의 根本의 思想體系이러든가 人生觀에 있어서 別樣變遷이 없습은 本래 正當하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民族은 弱國이나 羸國에게 自己生運問題의 解決은 依賴 하여 隣邦의勢力을 빌어서 우리國家社會의 安全을 維持하리라하고 있습니다. 勿論 그중 中에는 列國의 強權을 따라부실은 어미적은 高難을 克服 無知한 民衆의 盲目的服從을 策謀하는 利己의 所謂“指導者”들이 있으나 그중 衷心에는 外國人의 保政治的의 轉讓을 받지않고서는 暫時로 自己地位를 支持할수없음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이런 難의 賦手· 勳은 本國나라에도 없으니가 朝鮮에만 있고 嘆息할 必要는 없었습니다. 美國에 서는 이種政治家들은 機會主義者或은 雙重으로서 (Double-crosser) 라고합니다.

그러나 朝鮮에變遷한바가수리 없지는안한데 그나 하나는 醫學方面의 進步입니다. 豫防藥의 採用이러든지 醫學理論의 改良整理等으로서 流行病, 傳染病等을 防止하여 數百萬의 人命을 救護하게된것은 醫學의發達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好果의 原因은 政府要人들이 公需을爲한 政策을 採用하는 反而, 多數의 醫師들이 民間에서 保健事業에 努力하는 所以라고보는 同時에 適當 이方面의 發展에 朝鮮醫學協會會員 여러분들의 功이 巨大하다고 믿습니다.

將次 構成될 우리나라政府에 있던분들이 重職을 맡게될지는 두드보아야 알았지만 만드시 朝鮮醫學協會 會員분에게 保健問題, 醫學的教育及經濟問題에關한 立法, 行政에對하 야 協議, 指導를 請하야 한것입니다. 萬一政府側에서 不正當政策을 實施하야 國民에게 損害를 가지준때에는 責任은 輿論의 힘을 빌어서 이를禁止할것입니다. 이런일은 諸位가 醫學界의 人物으로서뿐만아니라 朝鮮國民의 一分子로서의 責任에서 어나될 聖任입니다.

勿論 여러분들自身이 日常, 醫學各方面의 研究에努力하여知識發展에 게으르거나너희야 할것은 두말할必要도없었습니다. 이方面에 배우고 알아야 할바가 너무도 많아서 醫師된 사람은 醫學界에서의 習慣은 謹지않고 斯界의 書籍을 偏讀하며 斯界의講會에 부스런히 參與해야할것입니다.

醫師들의 責任이 이렇게 重大하故로 이責任을 잘 履行하러하려면은 各自가 醫師로서 의 資格을 向上시키기 絕對必要하고도 力써야하는바입니다.

Figure 1. The preface of the first edition of JKMA.

“大韓醫學協會會報”로 변경되었다[2]. 2호의 권두언은 윤 일선 박사가 작성하였고 원저 1편, 임상실험 2편, 종설 1편 및 보고서, 학회 참석 후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세계 보건기구에 가맹한 의의” 및 “제14회 세계 Olympic 대한민국 대표단 의무보고” 등은 그 당시의 한국 의료사에서 대한 의사회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이처럼 2호가 발간된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8년 9월 1일 속간했으며[3], 1961년 1월부터는 월간지 로 발간되고 있다(pISSN 0023-4028). 1995년에는 제호가 현재의 “대한의사협회지”로 변경되었다. 초기 대한의사협 회지의 역사적인 활동과 내용은 1993년 10월 4일 대한의사 협회지 웹사이트(<http://kma.org/contents/board/mboard.asp?strBoardID=societyji>)가 구축되면서 비로소 온라인에 공개되고 회원들이 수월하게 접근하여 대한의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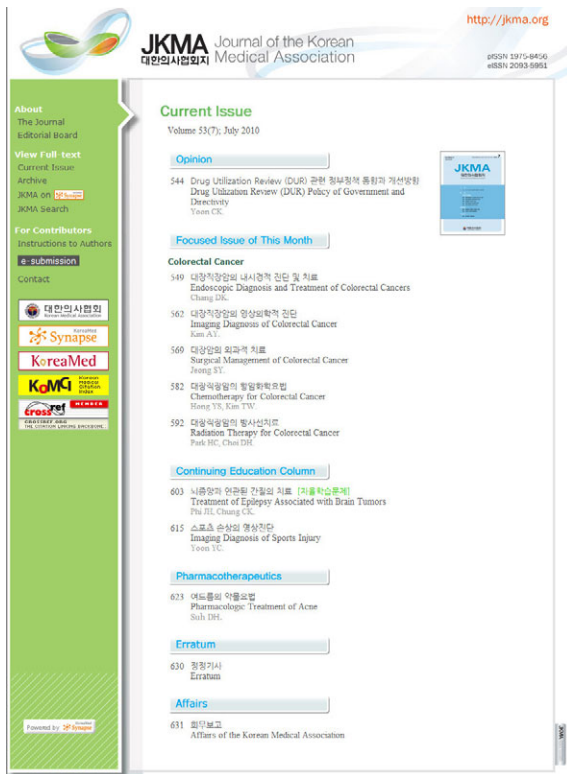


Figure 2. The web site of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at is shown as menu of the web sit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Cited 2010 Jun 29]. Available from <http://kma.org>.

및 대한의사협회지의 과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된 웹사이트가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한 메뉴로서 운영되었다(Figure 2).

## 현재

연간 35,000부씩 발간하는 대한의사협회지는 2008년 SCIE(과학기술논문 추가 인용색인)에 등재되었다. SCIE 등재는 대한의사협회가 국제적인 학술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발간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위상 역시 국제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국 의학의 연구 동향 및 발전상을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SCIE 등재 외에도 또 다른 국제학술지 평가시스템인 SCOPUS에 2007년에 등재됐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2007년부터 등록되어 있다. 기타 검색 시스템인 KoreaMed, KoreaMed Synapse, KoMCI, WPRIM(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Worldwidescience.org, CrossRef 및 Google Scholar를 통하여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2007년 인쇄본 잡지 등록번호인 ISSN을 새로이 발급받았고(pISSN 1975-8456), 온라인 잡지의 등록번호인 eISSN은 이번에 새 웹사이트를 구축하면서 2010년 6월 28일 발급받았다 (eISSN



**Figure 3.** The new web site of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opened on July 10, 2010, available from: <http://jkm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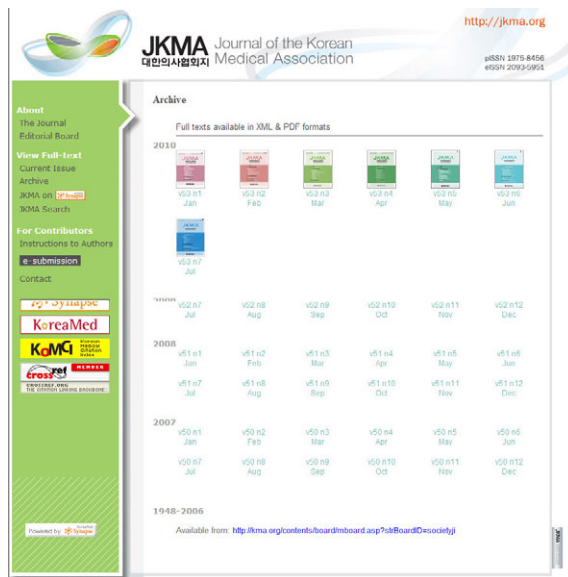
2093-5951). 학술지 도메인으로서 [jkma.org](http://jkma.org) 및 [jkma.kr](http://jkma.kr) 두 가지를 2010년 6월 21일 확보하였다. 새롭게 구축된 웹사이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아름답고 활발한 유선형을 기본 디자인으로 하였다 (Figure 3). 창 왼쪽의 메뉴에서 잡지 소개, 논문 작성법 및 현발간호의 게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과월호 잡지 (archive) 검색은 연도 및 월별로 간결하게 나열하여 검색이 쉽도록 하였다 (Figure 4). 한글과 영문 제목을 동시에 나열하여 국내 독자들의 편의를 배려하였으며, 전문보기를 통해 한글 논문을 PDF 파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구축 내용**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e-Journal 형태로써 일단 2007년 1월호부터 2010년 6월호까지 전문



**Figure 4.** The archive of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Cited 2010 Jul 10], available from: <http://jkma.org/>.

(full text)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7년 이전 논문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하였다.

**(3) 검색 기능**

Advanced Search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의 내용이 가능하며 영문 검색이 가능하다. KoreaMed를 통한 검색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서는 1948년 이후 현재까지 내용을 한글로 검색할 수 있다.

**(4) e-Submission**

현재 e-mail을 통하여 원고 투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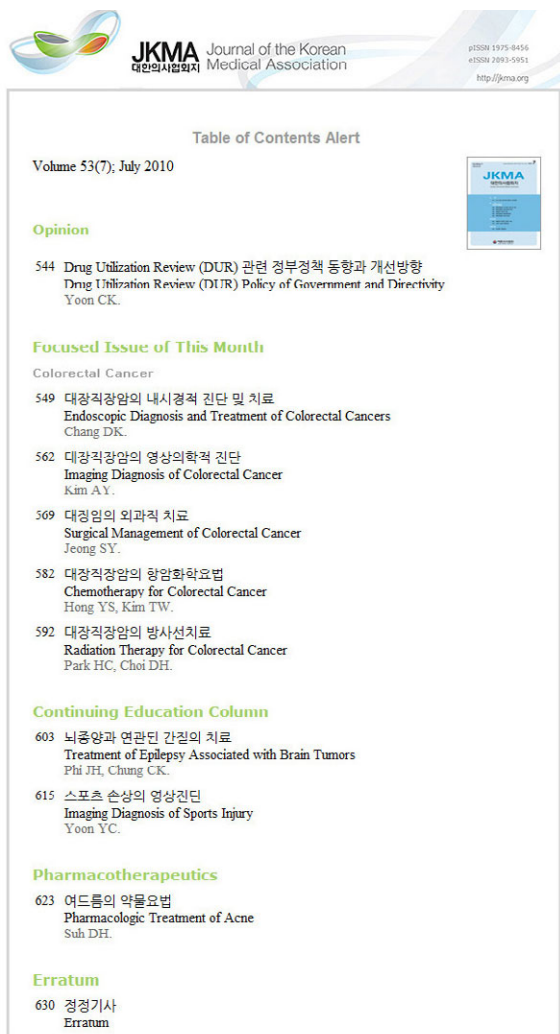
**(5) eToC (electronic Table of Contents) 제공**

새로운 호가 발간되면 웹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ure 5).

(eToC 링크의 예: eg.1: [http://jkma.xmlink.kr/src/jkma\\_mail\\_form/jkma-v52n12-eToC.html](http://jkma.xmlink.kr/src/jkma_mail_form/jkma-v52n12-eToC.html))

**(6) 참고문헌 하이퍼링크(hyperlink)**

대한의사협회지 게재논문의 참고문헌을 클릭하면 해당 문헌으로의 이동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참고문헌 하이퍼링크를 구축하였다.



**Figure 5.** The format of eToc link of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Cited 2010 Jul 10], available from: <http://jkma.org>.

**(7) Cited by 기능**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른 잡지에 인용된 회수 및 인용 논문 열람 기능을 통하여 게재논문의 인용도를 파악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얼마만큼 읽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8) Open Access Journal 참여**

학술지 내용(전문 또는 본문 일부, 표, 그림 포함)을 활용할 때 일일이 대한의사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인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ccess journal임을

공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지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영리단체 또는 기업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였다[4].

**미 래**

현재 구축된 웹사이트가 안정화되면 가까운 시일 내 더 나은 e-publication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창간호부터 모든 논문에 대한 디지털 개체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부여, 다음호 게재 논문 목록(forthcoming issue)의 제공, 출판유형별 검색, most read 및 most cited 기능 등을 온라인 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정보가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하고자 한다.

**(1) 창간호까지 디지털 개체 식별자(DOI) 부여**

2007년 이후의 논문에 대해서는 현재 DOI를 부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2006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창간호까지 소급해서 기존에 간행된 모든 논문에 대해 DOI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통해 초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초록에서 전문본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한다[5]. 이런 작업을 통하여 과거 1940년대 및 50년대의 한국 의료 초창기의 귀중한 정보를 오늘날에 되살려 의학학술지 정보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이야말로 온라인 세상에 사는 후학들이 선배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창간호까지 모두 논문에 DOI를 붙이면 선학의 업적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구글 프로젝트(Google project) 참여**

창간호부터 인쇄본을 모두 구글에 보내어 고해상도로 스캐닝하여 구글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제공함으로써 KoreaMed Synapse에서 최상의 질로 PDF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음호 게재 논문 목록(Forthcoming issue) 제공**

아직 인쇄본으로 발간되지는 않은 논문이지만 게재 확정

된 논문을 출판 전에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 (4) 출판 유형(Publication type)별 검색

유형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론이나 특집, 의학강좌, 약물요법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논문만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5) Most cited 및 Most read 기능

대한의사협회지 논문 중 어느 것을 국내의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였는지 또한 어떤 논문을 가장 많은 독자가 읽었는지 순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한 후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회원들의 흥미 유발 및 이를 통한 웹사이트의 이용도 증대를 꾀하고자 한다.

#### (6) 투고 관리 시스템(Manuscript Management System) 구축

아직은 대부분이 초빙 논문이나 앞으로 투고 논문도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은 반기호 하였으므로 투고 논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고 및 전문가심사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7)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학술지 web site에 보다 많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하여 Medline, EMBASE, BIOSIS Previews, Chemical Abstract, CiNAHILL 등 다양한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토록 하여 본 웹사이트의 이용을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 결 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의사협회의 새 웹사이트는 국내 회원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의료 정보 및 현실을 널리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우리 의료계의 과거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보관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사회에서 우리나라 의료계의 대표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새 웹사이트가 유익한 의학 정보를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 REFERENCES

1. Jaisohn P. Preface. J Korean Med Assoc 1948; 1(1).
2. Yoon IS. Preface. J Korean Med Assoc 1949; 1(2).
3. Shim HS. Republication. J Korean Med Assoc 1958; 2(1).
4.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Internet]. [Place unknown]. 2010 [Cited 2010 Jun 29]. Available from: <http://www.soros.org/openaccess/>.
5. The DOI System [Internet]. Oxford: International DOI Foundation; 2010 [cited 2010 Apr 19]. Available from: <http://doi.org/>.



### Peer Reviewers' Commentary

대한의사협회의 새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을 소개함과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 과거, 현재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다. 종이로 된 학술지에서 온라인에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한 학술지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맞추어 변화하는 모습과 그 의미를 잘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웹사이트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점에서 실제적으로 유익한지를 잘 설명하였다. 새로 구축된 웹사이트에선 의학지식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open access 정책을 수용하여 회원이외의 다수에게 의료계 전반에 관한 널리 알리고 XML을 기반으로 최신의 e-publication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우수 학술지에서 시행하는 첨단 방법이며 많은 인용과 다양한 지식 전파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대한의사협회지에 수록된 정보들이 보다 많은 회원들과 해외의 의학 연구자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의료계 현황을 알리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의료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정리: 편집위원회]